

2018년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면서 오성학/이형순 선교소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후원교회와 후원자님들께 안부를 전합니다.

한국은 이제 가을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1999년 2월 교단선교사로 몽골에 파송이 되어 10년간의 몽골사역을 마쳤고, 2009년 8월부터는 중국의 내몽골 사역을 중점으로 9년의 사역을 하였고, 이번 8월말로 저희 가정은 중국의 내몽골 사역을 완전히 철수하여 귀국했습니다. 그 동안 후원교회와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0년의 사역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새로운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도하기로는 베트남과 몽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과 접경지역에 있고, 중국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몽골은 이미 선교의 터를 잡아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마무리를 잘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신학교와 한국어교사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 가정의 새로운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의 중국 내몽골 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대학교 사역



2009년 8월부터 장춘사범대학, 2010년 8월부터 길림화교외국어대학, 2011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장춘직업기술대학에서 교수사역을 하였습니다. 한국어교수로 한국에 유학생들을 보내었고 매주 16-20시간의 한국어 수업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한국어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이었지만 목회자가 나오고 많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유학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2. SFC사역



사범대학에서 직업기술대학까지 많은 학생들이 SFC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SFC 모임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여 많은 결심 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번 5월에 졸업을 하였고 고신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명의 학생이 목사의 꿈을 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 신학교교수사역



9년동안 심양의 신학교 두 곳에서 2주에 한번씩 강의를 하였습니다. 10명에서 3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기독교교리와 대소교리문답을 강의 하였습니다. 매년 1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4. 내몽골 소식



특별히 몽골 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로 겨울 방학과 여름방학 이용하여 1달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7월-8월까지 1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남학생7명과 여학생3명을 모집하여 5주간의 일정으로 중국어성경을 집중하여 읽고 구원상담을 하였습니다. 10명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그 중 한학생의 요청으로 시골 부모님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하여 전 가족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5. 교회협력사역



중국교회와 한인교회에서 협력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교회의 찬양대세미나를 하였고 여러 지하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요청하여 인도하였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와 협력하여 대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6. 가족소식

이교수는 화교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어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어 선생들과 외국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중국어를 배우면서 교회반주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교회에 찬양세미나를 통하여 교회를 도왔습니다.

은혜는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영주권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빛 이는 홍천의 전인기독교학교에서 초중고등부 영어 전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빨리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동안은 오교수/이교수로 선교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오성학/이형순선교사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분간 국내에 머물면서 천천히 새로운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혹시 선교보고가 필요하신 교회는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연락처: 010-5946-5383 오성학선교사,

이메일: 5ohsung@hanmail.net

2018년 가을에 새로운 사역지를 준비하며..... 오교수(성학)/이교수(형순) 드림

오성학/ 이형순선교사의 기도제목

1. 새로운 사역지가 빨리 결정되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2. 그 동안의 몽골사역과 중국 내몽골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3. 이교수와 모든 가족들이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4. 은혜가 미국에서 잘 자리를 잡으며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좋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5. 은빛 이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통하여 민족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6. 우리가정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좋은 쉼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